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과 유아의 문제행동*

: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대처양식의 매개효과

Mother'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children's problems behavior

: Mediating effects of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석사 전영주**

나사렛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전숙영***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Hanyang Univ.

Master : Jeon, Young-Joo

Dept. of Child Studies, Korea Nazarene Univ.

Assistant professor : Jeon, Sook-Young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a mother'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children's problematic behavior(withdrawal, depression · anxiety, aggression and emotional instability). In order to expand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s, special attention was given to the possible mediator effects of mother's coping style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The subjects were 305 mothers with children 4-5 years old residing in the cities of Cheonan and Seongnam. It was found that mother's psychological well-being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level of children's withdrawal, depression · anxiety, aggression and emotional instability. The mother's coping style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were also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mother's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dition the mother's coping style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was found to be a significant medi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children's. This was especially so for internal problems behavior as like withdrawal, depression · anxiety and emotional instability that were perfectly mediated by the mother's coping style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Aggression, external problems behavior was partially mediated by the mother's coping style.

▲주요어(Key Words) :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 문제행동(problems behavior),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대처양식(mother's coping style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 본 연구는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 주 저 자 : 전영주 (E-mail : 3kandy@hanmail.net)

*** 교신저자 : 전숙영 (E-mail : sook0830@kornu.ac.kr)

I. 문제제기

학령전기 만 4, 5세의 자녀를 둔 어머니는 종종 자녀와 많은 갈등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 이전 연령의 자녀는 보호와 돌봄에 대한 요구가 컸던 반면, 학령 전기가 되면 점차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고 자기주장과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어머니는 자녀와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점차 양육자로서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고혜진, 2005; 우유영, 최진아, 1998). 그러므로 이시기의 자녀들은 부정적 정서를 표출하는 상황이 많아지게 되고 어머니는 이에 대해 반응하여 자녀가 정서를 파악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어야만 한다. 그러나 부정적 정서는 인간에게 있어 회피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부모는 처벌과 같은 부정적 통제 전략으로 자녀에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유로 긍정적 정서보다는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고, 아동의 부정적 정서를 적절히 표현하고 조절하도록 부모의 반응은 자녀의 심리적 건강 및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다고 밝혀졌다(Fabes, Eisenberg, Jones, Smith, Guthrie, Poulin, Shepard & Friedman, 2001). 즉,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표출할 때 부모가 지지적인 반응을 하게되면 아동은 화, 두려움, 슬픔, 좌절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조절할 수 있으며(Gottman, Katz, & Hooven, 1997), 자신의 정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Dunn, Bretherton, & Munn, 1987; Dunn & Munn, 1985).

이러한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해 보이는 부모의 태도는 부모와 자녀사이의 상호작용에 속하는 양육행동(Zelman, & Shipman, 1996)으로 일반적인 양육태도와는 달리 매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반응이며, 이러한 반응은 부정적 정서의 표출상황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Dunn, & Brown, 1994). 이렇듯, 아동의 성장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환경으로서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대처양식과 같이 점차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양육태도 또는 양육기술에 대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많은 선행연구들(권연희, 이종희, 2005; 김은경, 도현심, 김민정, 박보경, 2007; 박지혜, 2004; 이지선, 정옥분, 2002; 정운주, 2006, 허애수, 2003)은 어머니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어머니가 지지적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동의 높은 정서조절능력, 사회적 능력, 정서지능, 정서표현 태도와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보이는 어머니의 반응양식은 아동의 정서, 사회적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녀의 문제행동과도 관련이 있는데, 어머니가 자녀가 보이는 부정적 정서의 표현에 대해 비지지적인 대처양식을 사용할 경우, 자녀는 정서조절 능력이 발달하지 못하여 공격적 행동이나 문제행동의 표출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Caspi & Moffitt, 1993)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부모

가 자녀의 부정적 감정에 대해 처벌적인 비지지적 반응을 보이게 되면 아동은 실제의 분노상황에서 복수를 하려고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거나 회피하는 등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는 경향이 있으며, 최소화반응은 자녀의 비건설적인 대처전략, 외현화 문제행동 등과 연결된다(Eisenberg, Fabes & Murphy, 1996). 또 다른 연구(Fabes et al., 1999; Denham & Grout, 1992)에서 역시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비지지적인 대처양식은 아동의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대처양식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한 연구 역시 이루어졌으며, 자녀의 성별, 기질, 그리고 어머니 자신의 특성이 그것이다. 먼저, 성차에 대한 연구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남아보다는 여아에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정서표현이 더 허용적이라는 연구(김설화, 2008; 이종희, 2005; 이지선, 정옥분, 2001; 정진아, 2004)와 성차가 없음을 보고한 연구(김문신, 2003; 이혜련, 최보가, 2002; 한유미, 손경화, 2004)가 있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유아의 기질 역시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양식과 관련된 변인으로 밝혀졌는데(한유미, 손경화, 2004), 어머니는 자녀의 적응성, 반응성, 규칙성이 낮다고 지각할수록 스트레스반응이나 처벌적 반응과 같은 비지지적 반응양식을 많이 사용한다고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몇몇 연구(이강이, 2007; 전미순, 2009; 정운주, 2006; 한유미, 손경화, 2004)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대처양식과 관련된 어머니 특성변인에 대해 밝히고 있다. 어머니의 인구학적 변인 중 높은 교육 및 소득수준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과 관련이 있으며, 높은 우울성향과 같은 심리적 특성, 일상적 스트레스와 같은 환경적 특성 등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가 스트레스를 더 야기하게 되므로, 이러한 상황을 중단시키기 위해 벌을 주거나 아동의 부정적 정서 경험을 최소화 하려는 반응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정운주, 2006).

한편, 이강이(2007)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대처반응은 유아의 특성보다는 부모의 특성에 의해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어머니의 부정적 반응을 일으키는 여러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고찰해볼 때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양식에 대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특성과 관련된 변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특성과 관련된 변인 중 삶의 질에 관한 연구에서 등장한 심리적 안녕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심리적 안녕감이란 개인의 지각된 주관적인 행복감 또는 총체적인 감정을 강조하는 개념으로서 교육 및 소득수준 등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인 객관적인 변인이 주관적인 삶의 질을 크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을 밝힌 연구결과(Diener, 1994; Ryff, 1989)에 의해 시작되었다. 즉, Maslow의 자아실현

Rogers의 완전히 기능하는 개인, Jung의 개별화, Allport의 성숙, Erickson의 기본적 삶의 경향 등 심리학적 이론들을 기초로 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여러 차원에서 측정하고자 한 Ryff(1989)의 시도에서 이루어졌다. 심리적 안녕감은 6가지의 구성요소를 측정하며, 자아수용성, 긍정적 대인관계, 환경에 대한 통제력, 자율성,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이 그것이다.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긍정적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있고, 주위환경을 효율적으로 통제한다고 느끼며, 삶의 뚜렷한 목적이 있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키려는 동기가 있는 사람이다(김혜원, 김명소, 2000).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며 최근에 몇몇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어머니의 양육태도와와의 관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양육태도와와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임미리, 1997; 송아람, 2005)는 어머니의 낮은 심리적 안녕감은 어머니의 통제적이고 거부적인 양육태도와 관련이 있으며, 높은 심리적 안녕감은 자율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태도와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진연화, 2009; 최진희, 2009)은 어머니의 높은 심리적 안녕감은 청소년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김지현, 2010), 유아의 높은 자기조절 능력과 사회적 유능감과 관계가 있고(최진희, 2009), 높은 자아탄력성과 관계가 있음(진연화, 2009)을 밝히고 있다. 즉, 어머니의 높은 심리적 안녕감은 긍정적인 양육태도와 관련되고, 건강한 자녀의 발달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대처양식의 차이는 자녀의 특성에 의한 차이보다는 부모특성에 의한 차이일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결과(이강이, 2007)를 고려해볼 때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이라는 어머니의 특성,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대처양식인 양육태도, 자녀의 정서적 측면인 문제행동의 관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이 아동의 문제행동 및 구체적인 상황의 대처양식인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대처양식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또한 어떤 경로를 거쳐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상에서 제기한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대처양식 및 유아문제행동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이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대처양식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이 유아문제행동(위

축, 우울·불안, 공격성, 정서불안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이 유아문제행동(위축, 우울·불안, 공격성, 정서불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머니의 대처양식(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만 4, 5세 자녀를 둔 어머니로 천안시, 성남시 소재의 국공립어린이집에 자녀를 재원시키고 있는 어머니 305명이다. 유아기는 자율성의 발달로 인한 환경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며, 어머니는 이로 인한 갈등에 대한 자녀의 부정적 정서를 다루어야 하는 상황이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과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대처양식 및 유아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된 시기이기 때문이다.

연구대상 305명의 어머니 중 남아를 둔 어머니는 164명(53.8%)과 여아를 둔 어머니는 141명(46.2%)으로 이루어졌으며, 어머니의 연령은 30-39세(82.0%)가 대부분이었으며, 61%가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어머니가 지각하는 심리적 안녕감 척도,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대처양식 척도, 유아의 문제행동 척도(우울, 불안, 위축, 공격성)였다.

1)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 Ryff(1989)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 PWBS)를 김명소·김혜원·차경호(2001)가 한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문항을 분석하고 구성타당도를 검증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표 1>과 같이 이 척도는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 통제력,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의 6개 심리적 차원을 측정하는 4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있으며, 총 46점에서 23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를 들어보면 '나 자신과 인생살이에 자극을 줄 만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 자신에 대해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고 있다', '미래의 계획을

<표 1> 척도의 구성

| 측정도구 | 어머니의 심리적안녕감 |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대처양식 | 문제행동 |
|------|---|---|-----------------------------|
| 하위요인 | 자아수용 긍정적대인관계 자율성 환경통제력 삶의 목적 개인적성장 | 지지적 대처 감정표현의 격려 정서중심적 반응 문제중심적 반응 비지지적 대처 최소화 반응 처벌적 반응 스트레스적 반응 | 우울·불안 위축 공격성 정서불안정 |

짜고 그 계획을 실현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즐긴다' 등이다. 결과 분석 시에는 점수를 문항수로 나누어 모든 영역에서 1점에서 5점의 범위를 갖도록 조정하였다. 문항들의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자아수용 .82, 긍정적 대인관계 .52, 자율성 .66, 환경통제력 .56, 삶의 목적 .82로 나타났다.

2)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대처양식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대처양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Eisenberg, Fabes와 Bernzweig(1990)가 개발한 CCNES(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를 김희정(1995)이 번안, 수정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대처양식 6개 요인을 측정하는 7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요인은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6개요인은 크게 지지적 대처와 비지지적 대처의 2개 요인으로 구분된다. 지지적 대처양식에는 감정표현의 격려, 정서중심적 반응, 문제중심적 반응으로 이루어져 있고, 비지지적 대처양식에는 최소화 반응, 처벌적 반응, 스트레스적 반응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대체로 그렇다(2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있으며, 최소 12점에서 최고 60점의 범위를 갖고 점수가 높을수록 그 점수를 가지는 반응유형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 분석 시에는 점수를 문항수로 나누어 모든 영역에서 1점에서 5점의 범위를 갖도록 조정하였다. 문항들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지지적 반응의 감정표현의 격려 .82, 정서중심적 반응 .83, 문제중심적 반응 .77로 나타났다. 비지지적 반응의 최소화반응은 .72, 처벌적 반응 .72, 스트레스적 반응 .65로 나타났다.

지지적 반응 중 감정표현의 격려는 자녀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부모가 격려해 주는 반응이며, 정서중심적인 대처는 어머니가 자녀의 기분이 좋아지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위로해 주는 반응이다. 문제중심적 대처는 자녀의 스트레스에 원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격려해주는 반응을 말한다. 비지지적 반응 중 최소화 대처반응은

어머니가 상황의 심각성을 최소화하거나 자녀가 경험한 스트레스 반응의 가치를 낮추어주는 것이며, 처벌적 대처는 자녀가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할 때 부모가 벌을 주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적 대처양식은 자녀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했을 때 부모가 느꼈던 불안이나 스트레스 정도를 반영하는 반응이다.

3) 문제행동

이 연구에서 유아문제행동은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하은혜(1997)가 개발한 K-CBCL(Korea-Child Behavior Checklist)의 우울·불안(6문항), 위축(8문항), 정서불안(9문항), 공격성(14문항) 척도를 사용하였다. CBCL의 대상연령은 만 4세부터 17세까지이다. 각 문항은 부모들이 자녀의 행동문제증후에 따라 '그렇지 않다(0점)', '가끔 그렇다(1점)', '매우 그렇다(2점)'의 리커트 척도로 되어있으며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우울·불안은 0점에서 12점, 위축은 0점에서 16점, 정서불안은 0점에서 18점, 공격성은 0점에서 28점의 범위를 갖고 높을수록 우울하고 불안하며 위축되고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결과 분석 시에는 점수를 문항수로 나누어 모든 영역에서 0점에서 2점의 범위를 갖도록 조정하였다. 문항들의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우울·불안 .65, 위축 .62, 정서불안정 .81, 공격성 .86으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이 연구를 위해 사용한 자료는 성남시와 천안시에 소재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10개 시설에 재원중인 만 45세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맞벌이가 많고, 대부분 중간층인 경우이므로 설정하였다. 연령은 30대가 82.0%였으며, 학력은 고졸이 41.3%, 대졸이 49.5%를 차지하고 있다. 전업주부는 39.0%였으며, 정규직을 가진 경우는 41.9%였다. 맞벌이는 사용된 질문지는 연구목적에 충분히 이해한 각 학급의 담임교사의 도움을 받아 어머니들에게 배부되었고 회수되었다. 총 500부가 배부되었으며, 이 가운데 346부가 회부되었고, 회수한 질문지 중 부실 기재된 자료를 제외한 305부의

자료가 최종적으로 SPSSWIN으로 분석되었다. 연구문제의 고찰에 앞서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내적합치도를 산출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특성파악을 위해 빈도 분석을 그리고 각 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구체적 연구문제 고찰을 위해 Pearsom 상관관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전반적 경향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 유아행동문제,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대처양식의 전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의 평균을 산출하였으며,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의 수준은 3.15점에서 3.74점으로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의 영역 중 삶의 목적에 대한 안녕감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나,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삶의 목표나 개인방향 감각이 높고, 과거와 현재의 삶이 의미가 있다고 느끼며 신념을 갖고 있고 질 높은 삶을 영위하고자 하며 삶의 목적에 가장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아들의 문제행동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중 정서불안정이 가장 높은 점수였으며, 다음으로는 우울, 불안, 공격성의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대처양식을 살펴본 결과 대체적으로 비지지적 대처양식보다는 지지적 대처 양식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중에 특히 문제중심적 반응이 가장 높은 평균으로 나타나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정서적 공감이나 지지보다는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비지지적 대처에 대해서 살펴보면 어머니들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하여 처벌이나 스트레스 반응보다는 최소화 반응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보일 때 어머니는 자녀가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도록 실마리를 제공해주는 지지적 대처를 지지적 대처

<표 2>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 유아행동문제,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대처양식

| | | 하위변인 | M(SD) |
|--------------------------|---------|----------|-----------|
|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 | | 자아수용 | 3.30(.07) |
| | | 긍정적 대인관계 | 3.44(.52) |
| | | 자율성 | 3.15(.12) |
| | | 환경통제력 | 3.31(.29) |
| | | 삶의 목적 | 3.74(.07) |
| | | 개인적 성장 | 3.27(.34) |
| 유아행동문제 | | 위축 | .29(.24) |
| | | 우울·불안 | .48(.35) |
| | | 공격성 | .46(.33) |
| | | 정서불안정 | .50(.36) |
|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대처양식 | 지지적 반응 | 감정표현의 격려 | 3.05(.37) |
| | | 정서중심적 반응 | 3.64(.13) |
| | | 문제중심의 반응 | 3.66(.38) |
| | 비지지적 반응 | 최소화 반응 | 3.02(.38) |
| | | 처벌적 반응 | 2.40(.24) |
| | | 스트레스적 반응 | 2.53(.30) |

<표 3>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유아행동문제와의 상관관계

| | 1 | 2 | 3 | 4 | 5 | 6 | 7 |
|-----------|--------|--------|-------|-------|-------|-------|---|
| 1. 심리적안녕감 | 1 | | | | | | |
| 2. 지지적반응 | .44** | 1 | | | | | |
| 3. 비지지적반응 | -.38** | -.27** | 1 | | | | |
| 4. 위축 | -.12* | -.18** | .20** | 1 | | | |
| 5. 우울·불안 | -.11 | -.14** | .23** | .50** | 1 | | |
| 6. 공격성 | -.20* | -.19** | .19** | .35** | .62** | 1 | |
| 7. 정서불안정 | -.10 | -.15** | .15** | .50** | .76** | .85** | 1 |

*p<.05 **p<.01

양식 중 가장 많이 사용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비지지적 대처 양식 중에서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를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인식시켜서 유아가 자신의 부정적 정서 뿐 아니라 타인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서 까지 별 것 아닌 것으로 무시하게 만드는 식의 대처를 가장 많이 사용함을 알 수 있다.

연구문제의 분석에 앞서,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과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대처양식과 유아의 행동문제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은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대처양식 중 지지적 반응($r=.44, p<.01$)과는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지지적 반응($r=-.38, p<.01$), 위축($r=-.12, p<.05$), 공격성($r=-.10, p<.05$)과는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을수록 어머니는 유아에게 지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자녀들의 위축, 공격성 문제는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볼 때 어머니가 심리적으로 만족스러운 상태에 있다는 것은 그들의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보일 때 지지적 반응으로 잘 대처할 가능성을 높여주며, 또한 자녀들의 문제행동의 경향 역시 감소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이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대처양식에 미치는 영향력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대처양식을 예측하는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의 영향력 있는 변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의 6가지 하위 영역인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 통제력,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다. 종속변인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대처양식을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Durbin-Watson 검 증결과 통계량이 1.824-2.012로 정상분포 곡선을 의미하는 2에 가깝다. 이는 잔차에 대한 상관관계가 없음을 의미하므로 이 회귀모형이 적합함을 의미한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의 요인 중 삶의 목적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18.6%)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좀 더 살 보면, 삶의 목적 다음으로는 환경 통제력이 설명력을 높이고 있음(1.4%)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 역시 삶의 목적(1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환경 통제력이 추가적으로 1.6% 설명력을 높여 총 14.6% 설명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삶의 목적이 높을수록 즉, 어머니가 삶의 목표와 방향 감각을 갖고 있고 신념이 있으며 생활의 목표와 목적이 뚜렷하고 주위에 있는 기회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또한 주변환경을 잘 관리하는 환경통제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하여 어머니는 지지적인 반응을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어머니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부족하고 목표나 방향감각이 없을수록 또한 주위에 있는 기회를 인식하지 못하고 외부세계에 대해 통제력이 부족할수록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비지지적 반응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낮은 심리적 안녕감은 어머니의 통제적이고 거부적인 양육 태도와 관련이 있으며, 높은 심리적 안녕감은 자율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임미리, 1997; 송아람, 2005)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6가지의 하위 영역 중 삶의 목적과 환경 통제력만이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대처양식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환경통제력이 심리적 안녕감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임을 밝힌 연구(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를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삶의 목적 등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젊은 층 보다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중요한 예측변인이라는 연구 결과와는 다소 상이한 결과가 나와 이에 대한 연구가 축적된 뒤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이 아동의 문제행동(위축, 우울·불안, 공격성, 정서불안정)에 미치는 영향력

학령 전기 아동은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시기로서 이 시기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머니의

<표 4>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이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대처양식에 미치는 영향력

| 종속변수 | 단계 | 독립변수 | Beta | R ² | F |
|---------|----|-----------------|---------------------|----------------|----------|
| 지지적 반응 | 1 | 삶의 목적 | .434*** | .186 | 70.40*** |
| | 2 | 삶의 목적 환경 통제력 | .339*** .159** | .200 | 6.20** |
| 비지지적 반응 | 1 | 삶의 목적 | -.364*** | .130 | 46.32*** |
| | 2 | 삶의 목적 환경 통제력 | -.262*** -.170** | .146 | 6.66** |

p<.01 *p<.001

<표 5>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이 유아행동문제(위축, 우울·불안, 공격성, 정서불안정)에 미치는 영향력

| 종속변수 | 독립변수 | Beta | R ² | F |
|-------|-------|----------|----------------|-----------|
| 위축 | 환경통제력 | -.149** | .02 | 6.863** |
| 우울·불안 | 환경통제력 | -.143** | .08 | 6.358** |
| 공격성 | 자아수용 | -.186*** | .03 | 10.863*** |
| 정서불안정 | 환경통제력 | -.133** | .02 | 5.475** |

p<.01 *p<.001

심리적 안녕감의 영향력 있는 변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Durbin-Watson 검증결과 통계량이 1.784-1.925로 정상분포 곡선을 의미하는 2에 가깝다. 이는 잔차에 대한 상관관계가 없음을 의미하므로 이 회귀모형이 적합함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의 6가지 하위영역인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 통제력,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다. 종속변인은 위축, 우울·불안, 공격성, 정서불안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의 요인 중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환경통제력과 자아수용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 변인 중 아동의 위축, 우울·불안, 정서불안정(2%, 8%, 2%)의 문제를 의미 있게 설명하는 변인은 오직 환경통제력 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공격성(3%)을 의미 있게 예측하는 변인은 자아수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낮게 지각할수록 즉, 일상적인 일들을 다루는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주위환경을 변화시키고 향상시킬 수 없다고 느끼고, 주위에 있는 기회를 인식하지 못하며 외부세계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하다고 느낄수록 아동의 문제행동 중 위축, 우울·불안, 정서불안정의 성향이 높아짐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어머니가 자신에 대해 불만족하고 자신의 과거의 삶에 대해 실망하며 자신이 갖고 있는 나쁜 점들에 대해 괴로워하고 현재의 자신과는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일수록 자녀의 공격성향이 높아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4.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과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대처양식의 매개효과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과 아동의 문제행동(위축, 우울·불안, 공격성)에 대한 어머니의 대처양식(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의 매개적 역할을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의 접근 모델에 근거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대처양식의 매개적 변인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한 ① 첫 번째 단계로 독립변인(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이 매개변인(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대처양식)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으로 살펴보고, ②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독립변인으로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이 종속변인인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회귀분석으로 살펴보았다. ③ 마지막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과 매개변인인 어머니의 대처양식을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회귀식에 투입하여 종속변인인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2단계의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유의성이 감소하거나 사라지는지,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았다.

즉,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대해 효과가 유의하지 않으면 독립변수가 오직 매개변인을 통해서만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완전매개효과(perfect mediating effect)를 갖게 된다. 반면에 세 번째 단계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고, 세 번째 단계에서의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효과가 두 번째 단계에서의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효과보다 감소하게 되면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직접적인 영향과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모두 미치는 것이므로 부분매개효과(partial mediating effect)를 갖게 된다.

- ① 독립 → 매개
- ② 독립 → 종속
- ③ 독립, 매개 → 종속

이러한 단계에 따라서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과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대처양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고 그 결과는 <표 6>과 <표 7>과 같다.

먼저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 대처양식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본 <표 6>를 보면, 독립 변인인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이 매개변인인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442, p<.001$). 아동의 위축($\beta=-.149, p<.001$), 우울·불안($\beta=-.143, p<.001$), 정서불안정($\beta=-.133, p<.001$)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의 영향력은 매개변인인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을 투입하였을 때 그 영향력이 사라짐을 알 수 있다($\beta=-.055, -.053, -.042$ ns). 즉,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이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과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해 완전 매개적 역할을 함을

<표 6> 어머니의 심리적안녕감이 아동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 대처양식의 매개효과

| 매개효과 검증단계 | | Beta | R ² | F |
|-----------|---------------------------------|------------------|----------------|-----------|
| 위축 | ① 심리적안녕감→지지적반응 | .442*** | .193 | 73.738*** |
| | ② 심리적안녕감→위축 | -.149** | .019 | 6.863** |
| | ③ 심리적안녕감→위축 지지적 반응 →위축 | -.055 -.156* | .029 | 5.462** |
| 우울·불안 | ① 심리적안녕감→지지적반응 | .442*** | .193 | 73.738*** |
| | ② 심리적안녕감→우울·불안 | -.143** | .017 | 6.358** |
| | ③ 심리적안녕감→우울·불안 지지적 반응 →우울·불안 | -.053 -.119* | .016 | 3.496* |
| 공격성 | ① 심리적안녕감→지지적반응 | .442*** | .193 | 73.738*** |
| | ② 심리적안녕감→공격성 | -.186*** | .031 | 10.863*** |
| | ③ 심리적안녕감→공격성 지지적 반응 →공격성 | -.137* -.132* | .046 | 8.296*** |
| 정서불안정 | ① 심리적안녕감→지지적반응 | .442*** | .193 | 73.738*** |
| | ② 심리적안녕감→정서불안정 | -.133** | .015 | 5.475** |
| | ③ 심리적안녕감→정서불안정 지지적 반응 →정서불안정 | -.042 -.134* | .018 | 3.830* |

*p<.05 **p<.01 ***p<.001

<표 7>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이 아동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대처양식의 매개효과

| 매개효과 검증단계 | | Beta | R ² | F |
|-----------|--------------------------------|-----------------|----------------|-----------|
| 위축 | ① 심리적안녕감→비지지적반응 | .384*** | .145 | 52.489*** |
| | ② 심리적안녕감→위축 | -.149** | .019 | 6.863** |
| | ③ 심리적안녕감→위축 비지지적반응→위축 | -.054 .182** | .037 | 6.920** |
| 우울·불안 | ① 심리적안녕감→비지지적반응 | .384*** | .145 | 52.489*** |
| | ② 심리적안녕감→우울·불안 | -.143** | .017 | 6.358** |
| | ③ 심리적안녕감→우울·불안 비지지적반응→우울·불안 | -.025 .211** | .043 | 7.791** |
| 공격성 | ① 심리적안녕감→비지지적반응 | .384*** | .145 | 52.489*** |
| | ② 심리적안녕감→공격성 | -.186*** | .031 | 10.863*** |
| | ③ 심리적안녕감→공격성 비지지적반응→공격성 | -.143* .135* | .047 | 8.539*** |
| 정서불안정 | ① 심리적안녕감→비지지적반응 | .384*** | .145 | 52.489*** |
| | ② 심리적안녕감→정서불안정 | -.133** | .015 | 5.475** |
| | ③ 심리적안녕감→정서불안정 비지지적반응→정서불안정 | -.050 .134* | .019 | 3.981* |

*p<.05 **p<.01 ***p<.001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유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심리적안녕감의 영향력은 매개변인인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을 함께 투입하였을 때 그 영향력이 감소하여($\beta=.186, p<.001 \rightarrow \beta=-.137, p<.05$)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이 부분 매개함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

의 매개역할을 확인해본 결과이다.

독립 변인인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이 매개변인인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384, p<.001$). 아동의 위축($\beta=-.149, p<.001$), 우울·불안($\beta=-.143, p<.001$), 정서불안정($\beta=-.133, p<.001$)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의 영향력은 매개변인인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을 투입하

였을 때 그 영향력이 사라짐을 알 수 있다($\beta = -.054, -.025, -.050$ ns). 즉,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이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과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해 완전 매개적 역할을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유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심리적안녕감의 영향력은 매개변인인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을 함께 투입하였을 때 그 영향력이 감소하여($=\beta = .186, p < .001 \rightarrow \beta = .143, p < .05$)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이 부분 매개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요약해보면 위축, 우울·불안, 정서불안정은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보다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대처양식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만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즉, 어머니가 심리적으로 편안한 것 자체가 자녀의 문제행동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기 보다는 심리적으로 만족스러운 상태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하여 지지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킨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어머니의 심리적으로 불만족스러운 상태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비지지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높여 아동의 문제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한편, 아동의 공격성은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대처양식에도 간접적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심리적으로 안녕할수록,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지지적으로 반응할수록 아동의 공격성향은 감소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녀의 외현화 문제인 위축, 우울·불안, 정서불안정 등의 문제는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 자체보다는 이를 통해 어머니가 얼마나 지지적으로 반응해주는냐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녀의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들은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 자체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에서는 자율성의 발달로 환경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는 학령전기 아동의 문제행동이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과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대처양식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과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에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대처양식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대처양식, 아동의 문제행동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심리적으로 안녕

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보일 때 비지지적인 반응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높음을 의미하며, 또한 아동의 문제행동의 경향 역시 높아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이 긍정적일수록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이 긍정적이었다는 여러 연구들(김경희, 2000; 김현옥, 2002; 이경숙, 2002; 이정화, 김보경, 2005; 최미숙, 김미숙, 2005)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어머니의 우울 성향, 신경증적인 특성이 높을수록 아동의 심리·행동적 부적응행동이 높게 나타난다고 밝힌 연구 결과(이상정, 2009; 이유진, 2006)와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나 조절의 정도를 결정해주기(이병래, 1997) 때문에 자녀의 정서적으로 건강한 발달과 관련이 깊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아동의 위축, 우울·불안, 공격성, 정서불안정의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을 탐색해본 결과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 영역 중 환경통제력과 자아수용만이 의미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 중 환경통제력은 자녀의 위축, 우울·불안, 정서불안정과 같은 내현화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이었다. 즉, 어머니가 일상적인 일들을 다루는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주위환경을 변화시키고 향상시킬 수 없다고 느끼고, 주위에 있는 기회를 인식하지 못하며 외부세계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하다고 지각하는 것은 아동의 위축, 우울·불안, 정서불안정의 성향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통제력이 우리나라 성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연구결과(김명소 등, 2001)와 비교해 보았을 때 자녀들의 문제행동은 어머니의 환경에 대한 통제력의 만족도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는 결과이다.

한편, 자녀의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의 변인은 자아수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자신에 대해 불만족하고 자신의 과거의 삶에 대해 실망하며 자신이 갖고 있는 나쁜 점들에 대해 괴로워하고 현재의 자신과는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등 자신을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인간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인정하지 못할수록 자녀의 외현화 문제행동인 공격성향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을 수용하지 못하고 자신에 대해 가식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자녀에게도 역시 부정적 정서나 솔직한 자기표현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으며, 어머니가 자녀의 표현을 제한하는 경우 아동의 공격성이 증가한다(전숙영, 2007)는 연구결과와 결부지어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자아수용 역시 심리적 안녕감의 중요한 예측변인임을 밝힌 연구(김명소 외, 2001)와 비교해 볼 때도 자녀의 외현화 문제 행동 역시 어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받아들이느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셋째,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대처양식을 예측

하는 변인을 탐색해본 결과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영역 중 삶의 목적과 환경통제력이 의미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지지적 반응의 대처양식과 비지지적 반응의 대처양식 모두에서 같았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 변인과 비교해 보았을 때 다소 상이하다. 즉, 환경통제력의 하위변인은 아동의 문제행동과 어머니의 대처양식(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을 모두 잘 예측하는 변인이나, 삶의 목적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삶의 목적은 외모, 사회적 지위, 재산, 학벌 등 쉽게 타인에게 보여져 평가 될 수 있는 개인을 구성하는 외적 특성을 달성하는 것이기 쉽다(박은아, 2003). 특히 학령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경우는 30대로서 이 시기는 인생의 목표를 계획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개인 외적 특성을 달성하려는 삶의 목적이 심리적 안녕감에 매우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연구대상자들은 실제로 삶의 목적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리적 안녕감에서 삶의 목적은 이시기의 어머니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과는 삶의 목적에 대한 심리적 만족도의 정도가 실제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으며, 어머니가 정서적 상태는 곧 양육태도와 연결된다는 많은 선행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과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대처양식(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의 매개효과를 탐색해 본 결과 어머니의 대처양식은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과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완전매개하거나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현화 문제인 위축, 우울·불안, 정서불안정의 문제행동은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보일 때 어머니가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는 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은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 영향을 받으며, 동시에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대처양식에 간접적인 영향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어머니가 어떠한 반응으로 대처하는 가 매우 중요함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즉,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구체적인 대처양식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 그 자체가 아동의 내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대처양식에 영향을 주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는 구체적인 양육기술에 대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아수용과 같은 심리적 안녕감은 아동의 외현화 문제와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머니의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양육기술과 더불어 어머니 자신의 심리적 안녕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부모교육의 내용과 방식에는 기술과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어머니 자신의 심리적인 편안함도 함께 추구해야만 할 것이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대처양식을 측정하는데 있어 어머니 자신이 평가한 정보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어머니의 주관이 투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후 연구에서는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표출하는 상황에서 보이는 어머니의 행동을 관찰하여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와 양육자의 환경적 측면을 고찰함에 있어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과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대처양식 뿐 아니라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과 대처양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 아동의 문제행동 그리고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대처양식의 관계를 규명하고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점차 가족형태가 다양해져감에 따라 주 양육자 역시 다양해지는 현대사회의 특성을 비추어 볼 때 주 양육자의 양육기술, 양육자-유아간 상호작용과, 부모코칭의 기술이 매우 중요함을 밝혔으며, 나아가 양육자의 심리적 안녕감의 중요성을 밝힘으로써 현장에서의 부모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하나인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대처 양식은 어머니의 특성적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선행연구(이강이, 2001)를 지지하는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있어 구체적인 기술을 교육하는 측면과 함께 부모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풍부하게 하는 측면 역시 부각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령전기부터 아동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중재함에 있어서 부모 및 상담자, 교육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아동의 건강한 정서적 발달과 부모의 양육기술, 자녀와의 상호작용 방식, 코칭 기술의 습득, 나아가 부모 자신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고혜진(2005).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태도의 관계에 미치는 자아탄력성의 중재효과 및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연희·이종희(2005).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아동의 정서성 및 사회적 행동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6(6), 201-216.

- 김경희(2000). 유아 정서지능 발달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1(4), 21-34.
- 김명소 · 김혜원 · 차경호(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 분석 :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사회 및 성격**, 15(2), 19-39.
- 김설화(2008).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자아존중감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현(2010). 어머니의 자녀관련 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및 지지/통제가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경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경 · 도현심 · 김민정 · 박보경(2007).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 남녀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및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8(3), 115-131.
- 김현옥(2002). 아버지의 심리적 자세 및 역할수행과 유아의 사회 · 정서적 발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원 · 김명소(2000). 우리나라 기혼 여성들의 심리적 안녕감의 구조분석 및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분석. **한국심리학회지**, 5(1), 27-41.
- 김희정(1995). 어머니가 지각한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동의 대처반응.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은아(2003). 신체존중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문화 연구 : 한국과 미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22(2), 35-56.
- 박지혜(2004).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아람(2005).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과 양육태도의 관계가 유아의 심리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 동적가족화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우영 · 최진아(199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51-61.
- 오경자 · 이해련 · 홍강의 · 하은혜(1997). 아동 ·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K-CBCL). 서울:중앙적성연구소.
- 이강이(2007).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반응 비교. **한국생활과학지**, 16(3), 455-463.
- 이경숙(2002).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병래(1997). 정서지능 개념의 성립. **열린유아교육연구**, 2(2), 195-214.
- 이상정(2009). 어머니의 우울, 부부갈등 및 유아의 정서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유진(2006). 어머니의 우울,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행동문제와의 관계. 서울여대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치선 · 정옥분(2002). 부모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기 자녀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3(1), 17-35.
- 이정화 · 김보경(2005).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에 대한 모-자간 일치정도와 유아의 사회 · 정서발달과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2(2), 97-119.
- 임미리(1997). 취업모의 직업관련특성, 탁아기관의 질 및 심리적 안녕감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미순(2009). 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기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모 반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순영(2007). 어머니의 심리통제 및 아동의 행동적 자율성과 자기 통제 력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4), 172-177.
- 정윤주(2006).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방식 관련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4(11), 23-34.
- 진연화(2009).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과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미숙 · 김미숙(2005). 유아의 기질과 사회적 능력 및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간의 관계 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2(2), 153-172.
- 최진희(2009).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및 사회적 유능감.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유미 · 손경화(2004).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2(1), 198-206.
- 허애수(2003).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 및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또래 유능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ron, R. M., & Kenny, D.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Caspi, A., & Moffitt, T. E. (1993). When do individual differences matter? A paradoxical theory of personality coherence. *Psychological Inquiry*, 4, 247-271.
- Deham, S. A., & Grout, L.(1992). Mother's emotional expressive and coping: Topography and relations with preschoolers' social-emotional competence. *Genetic, Social, and General Psychology Monograph*, 118, 75-101.
- Dunn, J., & Bretherton, L., & Munn, P.(1987). Conversation about feeling states between mothers and their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3, 232-130.
- Dunn, J., & Brown, J.(1994). Affect expression in the family,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 and their inter-

- actions with others. *Merill-Palmer Quarterly*, 40, 120-137.
- Dunn, J., & Munn, P.(1985). Becoming a family member; Family conflict and development of social understanding in the second year. *Child Development*, 56, 480-492.
- Diener, E. (1994).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Progress and opportuni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1, 103-157.
- Eisenberg, N., Fabes, R. A., & Bernzweig, J.(1990). *The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 Scale: Procedures and scoring*. Unpublished scale available from the authors. Arizona State univ. Tempo.
- Eisenberg, N., Fabes, R. A., & Murphy, B. C.(1996). Parent'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 Relation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comforting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 2227-2247.
- Fabes, R. A., Eisenberg, N., Jones, S., Smith, M., Guthrie, I. K., Poulin, R., Shepard, S. A., & Friedman, J.(1999). Regulation, emotionality and preschoolers' social competent peer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70, 432-442.
- Gottman, J. M., Katz, L. F., & Hooven, C.(1997). *Meta-emotion; How family's communicate emotionality : Links to child-peer relations and other developmental outcomes*. Mathwah, NJ ; Lawrence Erlbaum.
- Ryff, C. D.(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 Zelman, J., & Shipman, K. (1996). Children's expression of negative affect: Reason and methods. *Developmental Psychology*, 32(5), 842-849.

접수 일 : 2010년 07월 15일

심사 일 : 2010년 09월 07일

심사완료일 : 2010년 10월 28일